

16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남수진 · 권박미숙** 과 함께하는 사람들

happyfem@yonsei.ac.kr



16대 총여학생회 선거

김남수진 · 권박미숙 과 함께하는 사람들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16대 총여 선본을 만나다
행복한 여성주의 공약 총정리

15대 총여학생회 평가
2003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박제된 선택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CONTENTS



- 04 행복한 여성주의 샘과 열을 만나다
- 08 총여학생회 왜 필요한가
- 10 15대 총여학생회 평가
- 14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 16 행복한 여성주의 공약 총정리
- 18 일상! 행복한 여성주의자로 살아가기
- 22 2003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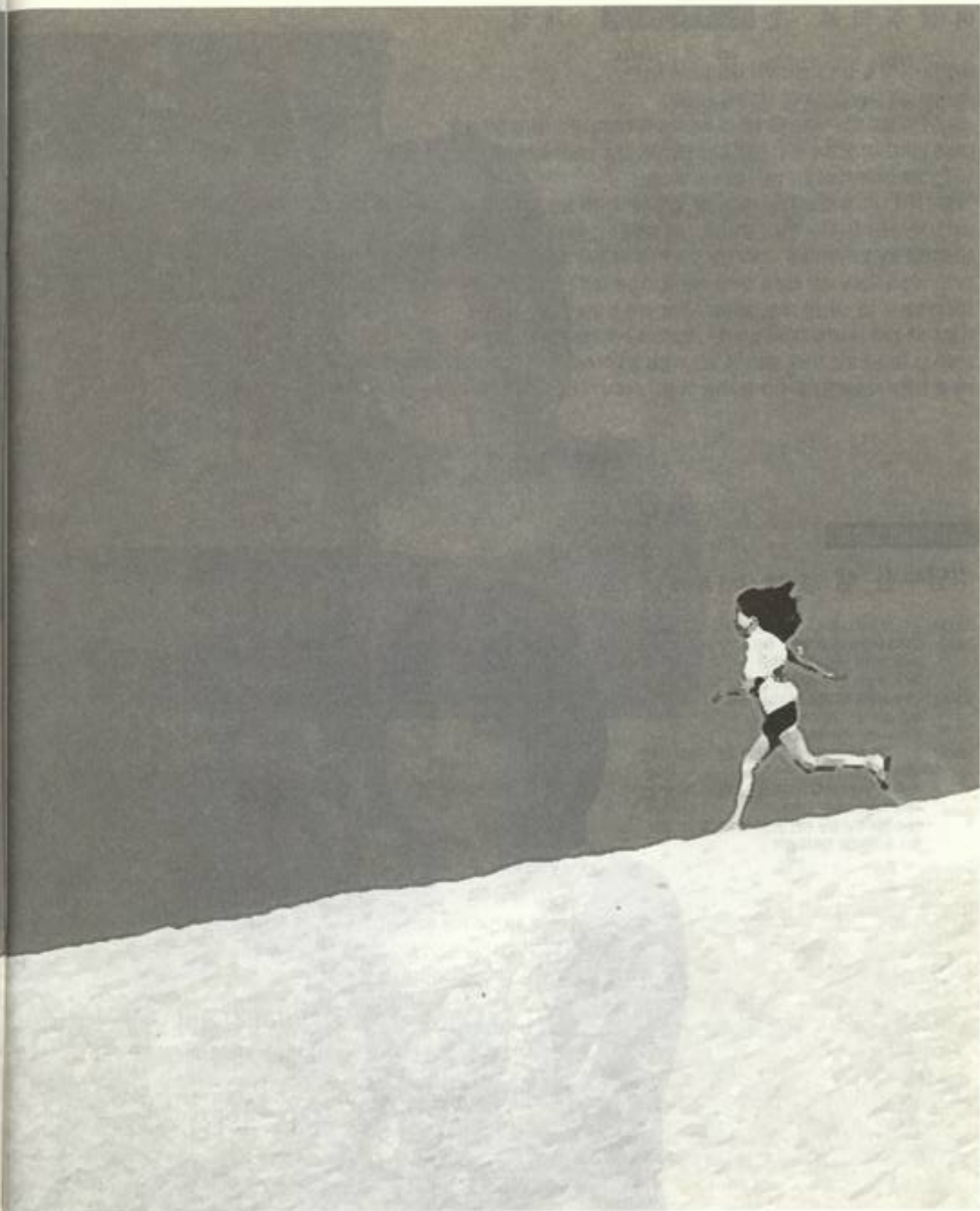
행복한 여성주의

16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남수진 · 권박미숙 과 함께하는 사람들

언어는 결코 본능적이거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무수한 요인들을 거쳐서 나오는 산물이다. 문제는 언어가 여성의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언어의 풍부한 자원의 사용을 거절당하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완곡어법 또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해왔다는 데 있다.

- 일레인 쇼윌터 [황무지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평]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여성주의로 만난 새로운 세상

내가 '여성주의'를 알게 되면서 부터 나를 둘러싼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내가 타인과 맺고 있는 무수한 관계들, 그 외부의 것들, 그리고 나의 생각과 행동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으며, 곧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어 갔다. 거대한 전환이었을까. 하지만 그것은 타인의 이미 구성된 세상의 시각이 아닌, '오롯이 나의 시각, 여성으로서의 나의 눈으로 보기'라는 지극히 당연한 과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달리 보이는 세상에서 나는 할일이 많아졌고, 나의 생활공간인 학내에서는 더욱더 그러했다. 여성이기에 불만함과 부당함을 느끼며 했던 것들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여성의 욕망에 대한 타부와 침묵을 깨는 것. 그것은 여성주의자로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세상을 내기, '살아가기'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여성이기에 언제나 타자의 지리에 놓여지는 세상의 이 굳건한 틀에 여성인 나의 목소리로 균열을 낼 때, 진정으로 자신을 긍정하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해방감을 느꼈고, 그리고, 행복했다. 이러한 전환과 해방의 경험을 이제 학교라는 이 공간 안에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

총학생회 정후보

김남수진 샘 (인문계열 4학년 불어불문학 전공)

2000년 광주 공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입학
2001년 문과대 여성주의모임 '모반' 활동
제4회 여성제 '용유어인' 기획단
제4회 여성연대행진 기획단
2002년 (연세 성목회 후리클럽) 연대회의 활동
월간 프리 페스타별 기획단
학생성서연구모임 여학생 대표
2003년 (연세 성목회) 학회 개성과 운영 개선을 위한 공청회 기획단
제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기획단
제6회 여성연대행진 기획단
(교수 성목회)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 활동
16대 총학생회 정후보 출마



지침없이 쉽없이,
언제나 새롭게
솟아나는
여성주의의 샘!

총학생회 부후보

권박미숙_열 (사회계열 3학년 사회학 전공)

2001년 대구 신명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입학
2002년 정치경제학 연구회 (목하회) 활동
(민주노동당 연세대 학생위원회) 활동
2003년 15대 총학생회 집행부
제1회 세수위원회 문화제 '여성, 욕망, 말하다' 기획단
제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기획단
16대 총학생회 부후보 출마



Fever,
너와 나를 휘감는
여성주의의
열기!!

나에게 주는 선물 - 여성주의

각본대로 사는 인생은 입시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싶었다.
대체 뭘 하면서 살면 살아있는 것 같을까.
대학 생활 내내,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좌충우돌 했다.
나는 그 무엇보다, '적응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 뭔가 이건 아니네, 라는
삶의 균열이 비치는 작은 의심들을 붙잡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캐묻고 싶었다.
그러니 내가 여성주의를 만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나의 일상엔 상충화된 가치에 익숙해질 것을 감요받는다.
내 몸과 마음에 기억된 가부장제는 나의 의식을 끊임없이 화석시키려 하고 있다.
나는 그것들에 익숙해지지 않으므로 살아있고 싶다.
내 경험을 내 언어로 성찰하고 말하고 싶다. 그리하여 나의 상처를 가우며
우리의 상처를 보듬고 싶다.
...말은 이렇게 거창하지만, 실상 나의 절반은 성찰하기를 귀찮아하는,
분노하기를 겁내는, 약한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내게, 여성주의를 선물한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는 말이 없다. 외할머니 산소에 올라는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니 제사에서
'절 네 번 하느라 지친 아빠가 운전하기 피곤하다고 한 마디 하자, 고만 입을 다문다.
그날 밤 엄마는 내 방으로 와 주무셨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사느냐는 내 완망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신다. '...그게 엄마 세대의 여자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란단다.'

친구는 말이 없다. 도서관 4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버튼을 누르려 팔을 뻗는 순간
등 뒤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허쭈... 여자가 재수없게 털도 안 밀고...'
햇볕이 좋고 날이 덥길래 민소매 옷을 입고 나왔을 뿐인데
친구는 입술을 꼭 깨물어야 했고 그 날은 마음껏 기지게 한 번 못 났다.

나도 말이 없다. 겨우 용기 내어 이곳까지 왔는데...
공원에 운동이나 하려고 나갔다가 성폭력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무거운 발걸음을 태 경찰서로 와서 사건경과를 냉정한 척 말하려고
간신히, 간신히 애쓰고 있는데, 하품하며 나를 쳐다보던 국민의 지팡이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바람에 말문이 턱 막힌다.
'너 그냥 남자애들이랑 술마시다 사고 쳐놓고선 여기 와서 이러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

...침묵 속에서 생각한다. 엄마의 말이 떠오른다.
나와 내 친구 역시 엄마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 집에서, 동아리방에서,
강의실에서 언제나 이렇게 순간순간 말문이 막히고, 스스로 택한 듯 침묵을 강요받고,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 우리는 말하고 싶다. 분노를 토해내고 싶다.
그럼으로써 자유롭고, 살아있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요된 침묵을

거둬 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입을 막고 있는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바로 보아야 한다.
타해진 눈을 다시 비벼 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주의의 예민한 감수성이다.
여성주의는 우리 안에 짜들어 있는 당연해 보이는 모든 관습을 찢고 거부하게 한다.
그 찢긴 틈에 튀워진 숨구멍 사이로, 우리는 비로소 내 삶에 관찰되던 무수한 부당함들이
정작은 내가 택한 것들이 아님을, 성별화된 사회가 강제한 것임을 직시할 수 있다.
부당하지만 너무나 익숙하여 우리를 마비시키는 삶을 거부하고,
사회와 나를 다른 눈으로 성찰하는 것은 낯설고 때로 힘들기도 한 일이다.
하지만 그 개인과도 같은 경험으로 우리는 당연히 침묵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분노하고, 거부하고, 그러므로 행복할 수 있다.

엄마의 쓸쓸한 얼굴을 바로 보며, 친구의 사글픈 표정을 마주보며, 흐려지는 두 눈을
비벼 뜨자. 내가 왜 내 어머니의 산소를 두고, 얼굴도 모르는 당신 아버지 제사에
올릴 전을 부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전 너무 신기한 일 아니냐고,
재수 없는 건 내가 아니라, 제 것도 아닌 털에 상관하고 싶어 안달인 나들이라고,
당신의 귀는 여성의 말을 제대로 해석 못 하느냐고,
그들에게 되물어 주자, 그렇게 거부하자.

그리하여... 행복해지자.

박 제 된 선택 을 거부 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참 많이도 이 질문이 쏟아진다. 특히나 선거철이 되면 더욱더 그러하다.

총여학생회는 왜 필요한가 라는 걸로 보기에 매우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이 오늘 나의 목표이다!

일단 이 질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 질문' 들을 살펴보자.

의사 질문이라 명한 이유는 이 질문들이 총여학생회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총여학생회는 왜 필요한가와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러한 질문으로의 대표 중에 대표로는

'총여학생회 선거에 왜 남학생은 투표권이 없는가'

'총여학생회는 있는데, 총남학생회는 왜 없는가'

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 질문에 대한 핵심을 정리하자면

1. 총남학생회는 없는데 총여학생회가 있다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이고
2. 총여학생회이기 때문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억울(?)한 것이고
3. 결국 없는 것이 나온 것 같은 총여학생회가 존재하는 것을 못 봐주겠다는 것이다.

총여학생회는 왜 필요한가

결국 이러한 질문은 '총여학생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총여학생회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그리고 역사법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투표권이 모든 학내 남학생에게도 주어진다면 그것은 '총학생회'이다.

총여학생회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보다는 '누구의 입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질문이 제기되는가'가 매우 중요하겠다.



캠퍼스 비상전화 설치

아름이 내린 캠퍼스
낭만이 있는 장소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로등 없는 길 인적이 드문 교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내 비상전화 설치를 요구하겠습니다.

학내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비상 전화를 설치합니다.

비상전화는 평소에는 교내전화로 사용할 수 있고,
긴급 상황시에는 24시간 운영하는 학교 경비실로 바로
연결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화여대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비상전화 -

- ① 평소에도 사용하는 교내 전화 번호
- ② 긴급 상황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비실 전화 번호
- ③ 전화를 거는 위치를 빠르게 알려주는 위치 번호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15대
총여학생회
평가



01.
내 삶의 정치학,
여성주의

02.
異相을 흐트러뜨
림으로써 理想을
꿈꾸다.

15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세상의 틀 대신 '여성주의'를 통하여 일상을 정치적으로 재구성해내는 데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던 일상의 법칙들에

반성폭력운동은 15대 총여학생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5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여전히 무감각하게 흘러가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합리화되고 있는 성폭력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려고 하였다. 또한 성폭력은 단지 한 개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가해 행위를 가능케 한 공동체의 문화 자체임을 지적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연세대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처하게 되는 '성폭력으로부터의 위협'을 조금이나마 막아내기 위해 좀더 견고한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 반성폭력 새터 내규의 개정 작업이었다. 신입생들이 '대학'이라는 공간을 최초로 경험하는 새내기배움터 자리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하여 2000년 제정된 새터 내규에 다양한 예시를 추가하고 빠졌던 부분을 보충, 내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내용에 대한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러한 고민들이 구체적인 현실의 영역에서 실천의 동력 역할을 해낼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민한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행동력에 기반하여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을 해석하며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보다 지속적이고 세심한 반성폭력 운동과 꼼꼼하고 냉철한 자기 성찰의 시도가 활동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이해를 함께 높이려 했다. 한편 반성폭력학칙의 개정과 운영상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동안 상당부분 묻혀있던 교수 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급부상함에 따라 학칙의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별화된 폭력'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 아니었나 싶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적 신체 접촉은 물론이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듣게 되는 성차별적·성폭력적 발언들 역시 명백한 학습권과 생활권의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었던 것이다. 아울러 소속 구성원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학교 당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제도 개선과 병행되어야 할 의식 개선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진전이 있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과/반 단위와 동아리 등에서 구성원들에게 부여하던 강한 소속감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학내에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자치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 새터 내규 역시 이러한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을 '나'의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학내 구성원들의 의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내규가 공공연하게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내규에 대한 지나친 경계와 내규를 내부 가볍게 여기고 희화화해 성폭력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이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자치규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자치규약의 존재 의의가 충분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성원들 스스로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란 어려운 것이다. 학칙개정운동 역시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학칙 내용의 개정과 운영상 개선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은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반성폭력 학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다소 성급한 시도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학칙에 대한 홍보와 교양이 선행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면 보다 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이것이 의식의 전환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었는지도 모른다.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15대
총여학생회
평가

03.
일상 짚어보고
내공쌓기 -
과연 '공유' 되었
는가?

한편 15대 총여학생회에서는 평화로운 나른함으로 가장한 '나의 일상'에 메스를 들이대어 그것이 뒤집어쓰고 있는 허울을 벗겨 내려 하였다. 매체 <데이드림 Daydream>을 6회 발행하였고 제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그나마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대학 역시 성별화된 수많은 공간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성의 시각에서 드러내었다. <Daydream>에서는 총여학생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내었고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기획과 특집을 구성하여 여성주의의 눈으로 나의 주위를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려 하였다. 여성제 기간에 여러 차례 마련되었던 강연회 역시 '여성주의로 일상 읽기'를 전달하려는 노력의 발현이었다고 하겠다.

지난 이라크전 기간에는 왜 우리가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지,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또한 몸

그리고...
다시 새로운
여성주의

결국 15대 총여학생회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주의'를 적극적으로 전면에 내걸고 활동하였다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여성주의 운동'과 '학내 구성원들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회로서의 활동' 간에 선을 긋곤 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주의를 통해 우리

과 성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성교육 프로그램 대신 여성의 sexuality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욕망을 억압하는 현실적 모순을 화제로 이끌어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feedback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전 총여학생회 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소통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나가면서도 보다 깊고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거리'를 던져주는 생각 하에서 만들어졌던 <Daydream>의 경우에도 feedback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는 한계에 봉착했던 것이다. 고작해야 잡지가 잘 배포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여러 문화 행사들 - 여성제나 sexuality 문화제 등 - 이 끝난 후에도 자체적인 평가 이외에 외부로부터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구하는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였던 점은 분명 지적할 만 하다.

과연 '여성의 경험'을 '여성의 언어'로 잘 표현해 내었는가 하는 부분 역시 짚어 보아야 할 부분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을 표명하고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경험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갔던 측면이 있었던 탓에 세심하고 소소하게 일상의 '결'을 짚어내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지점에 위치해 있는 여성들이 갖는, 매우 '작아 보이는' 차이 속에서 커다란 의미를 발견해 내려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이 노출되었다. 여성화/여성주의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웹사이트 내에 구축해 놓으려던 처음의 계획이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혔던 것이다. 결국 자료 목록을 올려놓고 필요한 자료를 메일로 요청하면 보내주는 '수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자료를 찾는 이에게나 보내는 이에게나 모두 번거로운 과정이 되어 버리지 않았을까. 업데이트는 꾸준히 되었고 총여학생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축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홈페이지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초반의 시도가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했던 점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의 일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학내의 여학생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 자신이 여성주의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언어를 만들어냄으로써 다른 여성들과 보다 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자체에 여성주의 총여학생회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아쉽고 부족했던 점을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장기적인 활동을 계획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주의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15대 총여학생회가 여성주의 총여학생회로서 갖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 20 이런 계속되는 선택의 과정이라 하여도 과연 아닐 만큼 우리는 때 순간 선택을 경험한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이번 학기엔 어떤 수업을 들을지, 졸업 후엔 무엇을 할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개인 의지의 발현으로 결정된 듯 보이는 '선택'. 그러나 그러한 선택이 전부는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정되어 있는 선택'이라는 것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에게는 그것이 더욱 커다란 강요로 다가온다. '고정됨'과 '강요'라는 자신의 실체를 숨긴 채 그저 '선택'이라는 가면을 쓰고서는 말이다.

2003년 학내에는 전해에 비해 신고 되는 성폭력 사건이 많았다. 이런 현상은 성폭력 사건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피해자의 경험이 말해질 수 있고, 말해야 마땅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강의실과 동아리 과/반방에서 교육자의 입과 동료의 입을 통해 뿜어지는 성차별적인 말들 또한 더 이상 사소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성별화된 인식을 사고의 전제로 깔고 행해지고 말해지는 모든 것들을 성별화된 폭력-성폭력으로 인식하는 감수성이 조금씩 퍼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껏 묻혀져 왔거나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 이것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는 여성주의의 성과들이다.

학내 성폭력 중 교수 성폭력의 사례가 한 해에도 몇 건 씩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수강신청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수업 제목과 수업 계획서를 보고 강의를 선택한다. 그 누구도 자신이 선택한 수업에서 성폭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업 중에 성차별적, 성폭력적인 말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고, 그러한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수업은 철저히 교수의 재량이다", "수업의 맥락을 떨어뜨려 놓은 채 하나의 발언만을 문제 삼지 말라"고 교수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입을 모은다. 하지만, 교수의 발언을 성폭력적으로 경험한 학생은 분명히 있다! 그 학생의 문제제기는, 자신은 수업을 선택한 것이지 수업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할 것까지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표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서 수업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일. 이는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는 의미 있는 행위이다.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이 겪는 불편함, 폭력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일, 당연한 일로 인식하라고 강요해 왔다. 이 가부장제의 각본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기반한 언어와 입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여성은 다만 끊임없는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며 살 수 밖에 없다. '이름 나이에 시집가야지' 혹은 '나이가 찼으니'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여성이, 별로 원하지 않음에도 결혼을 선택하는 일, 직장을 가지고 있는 기혼 여성이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할 것을 선택하는 일, 남성의 시선으로 재단된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일, 성매매가 무수한 가지로 여성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선택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진정 '선택'이라 부를 수 있을까. 삶의 곳곳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무수한 상황들 속에 여성의 입을 막아 놓은 치밀한 가부장제의 그물은 어디든 있다.

여성이 여성주의를 만나는 것은 내 입을 막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치우는 일이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부딪치고 싸워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느냐', '그냥 편안히 즐겁게 살아라'라고 '충고'하곤 한다. 하지만 여성주의가 내 몸에 젖어들수록 그들이 말하는 편안함과 즐거움은 나의 것이 아니게 된다. 대신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전혀 새로운 해방감과 행복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여성이라면 한번쯤 느낄 수 있는, 때로는 많은 부분 공유할 수 있는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짜증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쉽사리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다시 바라 본 세상은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곤 한다. 어쩌면 대답을 얻어갈수록 불편한 상황들은 더 많이 보이고, 그래서 살기가 더 팍팍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행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왔는지를 새로운 눈을 통해 알아가는 기쁨은 곧 일상에서 겪는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여성주의가 주는 첫 번째 행복은 바로 이것이다. 아픈 경험과 성찰, 그리고 실천 뒤에 찾아오는 진정한 행복감.

여성주의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쁨은 "함께하는 즐거움"에서 비롯된다.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지닌 이들이 모여 경험을 나눌 때,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이가 나 말고도 또 있다는 것,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쓰러짐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신의 상황과 고민을 풀어낼 언어를 갖게 된다는 것은 자신을 긍정하고 확고히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박제된 선택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이로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경험을 여성의 눈으로 반추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부당함에 대해 발화할 수 있게 하는, 그리하여 내가 만들지 않은 질서를 파악하고 전복시킬 수 있게 하는 힘.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해방하는 경험. 그 힘과 경험은 여성을 행복하게 한다. 여성주의 활동이란 바로 여성의 경험과 언어로 만들어진 새로운 삶, 숨쉬 공간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

여성이라면 한번쯤 느낄 수 있는, 때로는 많은 부분 공유할 수 있는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짜증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쉽사리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다시 바라 본 세상은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곤 한다.



행복한 여성주의 공약 총 정리!

일상, 일상, 일상의 쳇바퀴 속에서 영문
모른 채 구르다가 짊어지고 갈라져 갈
에 지쳐 늘어져 있더니 몸과 마음을
살피고 토닥이는 따뜻한 힘 내 눈으로
쑤여 터트려 나쁜 내 모습을 줄라 대던
큰 쓰름 속에서 벗어나 여성의 경험을
어허해내는 설레임과 여성으로서의
자정의 해내는 즐거움 여성주의의
남은 새로운 활기와 용기를 부여한다.
그래서, 여성주의는 행복하다.

함께해요~
행복한
여성주의!

11 하나, 여성주의를 함께 즐기는 자리. 재미있는 여성주의 문화제 마련
섹슈얼리티 행사, 섹슈얼리티는 생물학적인 것이다? NO! 여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입으로 여성
의 섹슈얼리티를 말하는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여성제, 여성들의 축제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12 둘, 女友에게 보내는 행복한 선물
여학생 수첩 발행, 학내 여학생휴게실 지도, 월경주기 달력,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 여성학 도
서, 영화 목록 등 여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담긴 여학생 수첩을 발행하겠습니다.

13 셋, 여성주의 총여학생회와 조우하다
여학생휴게실에 게시판 설치, 여류에서 여성주의 총여 만나기-총여학생회 행사와 일정을 소개
하고 여성주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시판을 설치함으로써 여학생들에게 한걸음 가까
이 다가갑니다.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총여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고, 총여학
생회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겠습니다.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여성학/여성운동 데이터베이
스도 확충하겠습니다.

14 넷, 여성의 언어, 나누고 쌓기
여자들의 방, 각종 고민 상담과 Q&A 게시판, 일상 나누기 / 여성들만의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겠습니다.
새학기 맞이 여성학 학교 세미나를 통해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고, 강연회를 들으면서 여성주의
로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여성주의 매체 발행, 여성주의 매체에는 여성의 언어가 담겨있습니다. 우리의 세세한 일상을 곱
곱하게 돌아보고 사회 현안들을 여성의 언어로 전하는 여성주의 매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겠습
니다.

반성폭력
운동은
계속된다

15 다섯, 함께 만드는 여성주의
'나만 혼자 예민한 걸까...' 과 반 동아리에서, 혹은 수업을 들으면서, 여성주의의 감수성을 가
진 이들이 한번쯤 자신에게 던져봤을 법한 질문입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
는 숨은 여성주의자들이 만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발화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수위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11 하나,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반성폭력 학칙이 성폭력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및 운영 감시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12 둘, 반성폭력 자치 규약 제정 운동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기초로, 새터 기간만이 아닌, 학내 모든 자치단위에서 일상적으로 지켜져
야 할 반성폭력 자치규약 제정 운동을 펼쳐나감으로써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13 셋, 성폭력 사건 접수 및 해결
총여학생회에서 학내 성폭력 사건을 신고 받아 사건 해결을 지원하고 피해자 지지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4 넷, 수업 중 성차별적·성폭력적 발언 없애기
수업 중 발생하는 성차별적·성폭력적 발언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신고 접수, 문제제기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15 다섯, 캠퍼스 비상전화설치
학내 어느 곳도 성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비상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발신전용 비상
전화를 학내 곳곳에 설치하겠습니다.

낮선
이야기?
나의
이야기!

11 하나, 성매매
반성매매 학교,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센터 '새움터'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학내에 성매매에 대
한 여성주의적 시각을 퍼트리고, 성매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하겠습니다.

12 둘, 여성 노동
3.8 여성의 날은 부당한 노동조건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대투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8을
맞아 학내에서 여성 노동의 현 상황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13 셋, 단대별 여성교수 비율
2003년 교육투쟁 협약서에는 단대별 여성교수 비율을 20%이상으로 할 것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 시행은 불투명합니다. 학내 여성 교수 비율 확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여성주의자들에게

나는 여성주의자로서 사는 것이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운동을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해방하고 여성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여성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면, 그것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여성주의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도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개개인으로 떨어져 있을 때도 강인하고 즐겁게 싸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하지만 나는 내가 혼자 페미니스트인 것이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혹시 너와 나 두 명이 페미니스트라고 해도 그저 '여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자 스스로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만일 동지가 있다면 혼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 말고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둘이, 셋이, 여럿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다양하고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내가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좋겠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여성들의 이야기를 더 진지하고 무게 있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우리 개개인 이 다른 친구와 연대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건넬 수 있는 용기가 많아지길.

나는 우리가 그저 여성주의적인 감수성을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과 비판을 편히 아는 사람들끼리 나누고 마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이들에게 소리 내어 전하는 데 게으르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우리 입을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으며, 다른 누군가가 대변하는 나는 사실 '나' 일 수가 없고, 그것은 여성주의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운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데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이야기라도 자주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것이 올바르고 좋은 것이라면 퍼뜨릴수록 좋고, 혹시 조금 다르거나 틀린 생각이라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고쳐나갈 수 있으니 좋다. 나는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하는 데 부지런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과정과 결과들이 여성주의적인 것이 되도록 늘 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고민하는 다른 여성들의 시간과 노력과 성실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며, 그들의 노동을 헛되게 만들거나 더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늘 긴장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옆에 있는 여성들을 단지 일만 같이 하는 동료로 대하거나 재미를 나누는 가벼운 친구로만 대하는 데서 나아가 우리가 함께 여성(주의자)으로 살아갈 계획과 서로의 신념에 대한 전망을 나누고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자 관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성(주의자)이기 때문에, 여성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여성들이 함께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by. 솔레

내가 왜 여성주의자가 되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스스로 행복해지고 싶어서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행복'이 혼자 즐겁게 사는 행복은 아니라 생각한다. '여성으로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삶과 그것을 둘러싼 주변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여성주의자가 되었다. 이미 주어진 여성으로서의 삶, 여성으로서의 몸, 여성으로서의 나를 둘러싼 세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보는 것 그리고 나를 해방시키는 것, 이런 적극적인 몸짓이 내 삶을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내 여성주의의 출발이었다.

나의 삶과 주변에 의문을 제기했기에 나는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각자의 삶의 태도와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삶을 여성주의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 내 주변에서 만나는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은 언어로 이야기되고 공감을 얻고 더 많은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하는 것, '두입술'이 나의 여성주의 활동의 시작이 되었던 것은 아마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그녀들도 함께 품고 있었고, 그에 대한 제안들을 해주었고 내가 그것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시작한 여성주의가 삶을 통해 지속하는 운동이 된다고 믿으며, 평생을 두고 실천하는 운동으로서 더욱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주의는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우리는 언제나 100% 정치적으로 올바를 수는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언어와 행동에 긴장하며 우리의 운동과 그 방식 또한 '여성주의적' 일 것을 성찰한다. 우리는 선언만 남무하고 이론과 실천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많은 '운동'을 이미 보아왔다. 여성주의가 그보다 가능성이 있고 행복한 것은 내 삶과 유리되지 않으며 늘 자신을 철저히 성찰하기 때문이다. 그 긴장감이 때로 우리를 조금 피곤하게 만들지 몰라도 안일하지 않게 우리를 늘 돌보는 것이 곧 여성주의 안에서 나를 올바르게 키우고 또 여성주의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나는 여성주의가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 믿는다. 그러므로 여성주의자로서의 나의 관점은 언제나 '진보'의 편에 서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부장제는 여성과 남성을 '차별' 짓고 '정상'과 '비정상'을 규정했으며, 중심과 주변을 나누었다. 언제나 '여성'의 일과 권리는 더 '중요하고' '급하고' '큰' 무언가에 밀렸던 것에 저항하듯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어떤 '차별'에도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 이상 사소하고 덜 중요하다는 논리로 주변화 되는 가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진보적 가치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비판적인 눈과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우리의 이름에 책임을 지는 여성주의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성주의자'라는 이름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용감해야 할 때 용감하지 못하고,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 나로 인해 많은 여성주의자 동지들이 곤란해지거나 비난받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며 언제나 신중하게 '여성주의적 가치'에 맞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여성주의자라면 주변 여성들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여성주의자라고 했던 어느 페미니스트

행복한
여성주의자
가 되는것

내가 행복한
여성주의자인
이유?

의 말처럼 우리는 여성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경험과 고민이 있다. 단지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삶과 그녀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지지하고 손을 내미는 데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여성주의자로서 이름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우면서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다.

세심하고 치밀하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 진보적인 가치와 여성주의적 가치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아는 것, 나의 삶을 바꾸고 여성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들을 나는 여성주의 안에서 알았다. 누가 누구를 억압하는 것, 약자와 강자, 더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구분되는 것 여성주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가치다. 수많은 가능성과 희망 앞에서 나는 여성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여성운동을 하고 있음이 행복하다. 우리 함께 언제나 이름에 책임을 지는 '멋진 여성주의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by_ 이갈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 여성주의자인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대답이 No가 아닌 Yes인걸 보면 내가 '행복한 여성주의자'가 맞긴 맞나보다. 대답을 망설이게 하는 것도 순전히 세상이 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서이지 여성주의자인 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아서 는 아니니까, 왜 그리 세상은 여성주의자에게 태클을 거는지..

그럼에도 내가 나를 행복한 여성주의자라 생각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여성주의는 여성으로서의 내 삶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다. 여성주의가 아니었다면 여자들끼리만 모여서 피포먼스를 하지도, 밴드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혹시 우연히 하게 됐더라도 그 의미와 가치와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있게 "우리는 여자들뿐이에요"라고 하기보다 "에이, 그래도 남자 하나는 있어야지."라는 말에 주눅들었을지도 모른다. 또, 여성주의를 몰랐다면 벌써 '시집가라'는 얘기를 꺼내는 친척들의 말에 취직보다 결혼에 더 마음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20대여, 영원하라"는 광고멘트에 자극 받아 당장 피부관리에 열을 올렸을지도 모른다. 다이어트 하느라 매끼니 칼로리를 계산하고 가끔은 굶는 삶을 계속했을지도, 어떤 옷이 나에게 어울리는지 보다 어떤 옷을 남자들이 좋아하는지 더 신경쓰고 있을지 모른다. 여성주의와 가까워질수록 나는 나의 말, 행동 하나 하나를 감시하고 있던 거부장적인 시선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누구의 말 혹은 누구의 여자친구가 아닌 '나'에 대해 고민하는 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변함없이 이 땅의 여성들을 주눅들게 하고 있는 "여자는 이래야지," "기집애가 어덜..." 류

의 말을 들어도 내 행동을 검열하기보다 어이없다는 듯 한번 웃어주고 무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핸드폰 그룹지정에 '쌍년'이 들로 되어 있는 여성주의자들이다. 나를 화나게 하는 일에 함께 열을 내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일에 함께 흐트러하는 그들과 나는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뭔가가 있다.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가!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서 생각이 달라 혼자 섬이 된 느낌이라도 내 편이 되어 줄 그녀들이 여기저기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를 훨씬 덜 외롭게 한다. 여성주의자들은 또한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어떤 길로 가야할까 고민이 될 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성주의자들이다. 내가 이 길로 가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말들을 해줄까? 나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함께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고민하는 시간은 더 짧아지고 길도 더 분명하게 보인다. 나를 지켜보는 그들의 눈이 있기에 내 삶에 대한 책임감도 더 가질 수 있다. 내가 잘못 행동하면 여성주의자 전체가 욕먹는 거라는 생각에 내 행동과 말에 고민이 더 많아지면서, '너 인생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남들은 가족 때문에 그 생각을 한다지만 말이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여성주의자일수 있는 것은 여성주의가 내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다른 여성주의자들처럼 별명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더 밝아지고 덜 방황하게 되었다. 아직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할지 막연한 부분도 있지만, 여성주의라는 말이 아직 껄끄럽고 불편했을 때보다 훨씬 더 모든 게 선명하게 다가온다. 장남, 장녀의 말발로서의 나, 졸업한 여자 선배로서의 나, 회사에서 나이 어린 여성으로서의 나.. 다양한 타이틀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 속에서 갈 길을 잃고 좌절하고만 있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상황을 여성주의로 읽고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함께 고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직면한 문제가 내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다른 여성들의 삶에 무관심할 수가 없다. 그녀들의 삶과 내 삶의 연결고리를 찾고, 공감하고, 함께하고, 연결망을 더 크게 키워가다 보면 우리에게 세상을 바꿀 힘이 생길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딜 가든 비록 소수이더라도, 비록 힘이 없더라도 그 속에 있는 여성들을 먼저 찾는다. 여성주의는 또한 소수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었다. 이 땅에서 여성으로서 당하는 차별에 눈을 뜨면서 다른 소수자들의 삶에도 눈을 뜨게 된 것이다. 물론, 100%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훨씬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예민해진 것은 사실이다.

여성주의를 사전에 단 몇 줄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것이다. 열 두 밤을 꼬박 새워서 설명해도 모자라는 것이 여성주의일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여성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글 하나로 끝내는 것이 못내 아쉽다. 눈감는 순간까지 여전히 나는 여성주의자일 것이고, 그 때까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여성주의자로서 즐겁고 신나는 일들이 더 많았으면, 언제 죽더라도 '그래, 나는 여성주의자라 행복했지.' 할 수만 있다면!

by_ 흐름

가족을 지키기 위한 호주제 폐지 반대 대두 그리고 '가족 규정' 삭제 없는 호주제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일방적인 희생 위에 만들어진 '스위트 홈'은
누구의 집인가?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자, 여성 차별의 주역이더라!

대학 여성교수 채용 노력

국립대 여성 교수 20% 할당제 실시.. 매우 열심히 노력 중
학생들과 여성 교수 20% 채용 약속을 한 우리학교: '여성 우대' 내 글자가
유일한 노력임

주5일제 시행. 하지만 여성노동자에게 주5일제란 없다

To. 민주노동
대규모 사업장 위주의 주5일제 시행이 '주5일 아빠, 주6일 아빠'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라니요? '아빠'가 될 수 없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주5일제는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 생존으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당신만이 희망이어야 합니까?

보성 초등학교 교장 자살

직장에서의 성차별적 분업을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몰아가다.
사건의 본질은 한 학교의 교장이 여교사에게 차시중을 강요했다는 것.
그것은 명백한 성차별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차시중은
'그까짓 사소한 것'으로만 받아들여질 뿐...

북한 '미녀' 응원단

통일, 좋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 민족정서는 북한 여성 응원단의 외모를
대상화하고 관람해야만 생긴단니까?

2003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수업 중에 발생하는 강의실 성차별적·성폭력적 발언, 없어져라!

교수님,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강의실에서 스승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퍼부어지던 성폭력적 발
언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다.

화장실 성폭력 예방 비상벨 설치

화장실 가는 일이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는 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그러나 더 어처구니없는 건 그래서 설치한 화장실 비상벨에 대해 남학생 모
두를 가해자로 보는 것이냐며 시비거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 사물함에 자물
쇠를 다는 건 전교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입니까?

'그' 진보의 그 이야기들

당신의 그 '절고 아름다운 밤' 중에 결국 '여성'은 없었군요.
남한테 신중하고 조심스러우라고 충고하기 이전에 올해 자신이 얼마나 '못된' 말을
많이 했는지 한번 목록이라도 짜보시길.
손석춘씨--

몰아치는 현실 정치의 파도 앞에서 조개 줌은 일이 되어버린 성폭력 사건.
부끄러운 무감각함과 아무 생각 없는 당당함으로 '즐거운' 정치 개혁이 가능할까요.
100분 토론 진행하며 보여주던 순진함은... 무지함이었군요.
유시민씨--

행복한 여성주의
happyfem@yonsei.ac.kr



박제된 선택 거부하기 - 인어공주 말 되찾을 때까지

에피소드 01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느라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한 나. 갑자기 끈적끈적한 손이 내 팔에 감지되었다. 이젠 뭐지?...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근데 이젠 어디서 날아온 이상한 물체? 느끼한 얼굴의 한 사내曰

“아가씨, 같이 술 한잔하지...”

허걱. 너무나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기막힘이 서서히 불쾌감으로 바뀌는 순간, 무시하고 지나가려던 나는 멈춰섰다. ‘뭔가 말을 해야해. 이왕이면 극도의 모욕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해주리라.’ 다짐하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뒤를 돌아서는 순간. 그 사내. 느물느물 다가오며 하는 말.

“그래, 그럼 그래야지... 술 한 잔 하자구.”

앗! 이런 구제불능. 이성을 차릴 수 없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이어야 하는 걸까?

언젠가 호프집에서 합석하자는 남자들에게 싫다고 말했다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못생긴 것들이 콧대만 높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듣고도
후환이 두려워 그냥 지나쳐야만 했던 일들...

에피소드 02

자신이 남녀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열린 사람이라 자처하던 한 남학생曰

“사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데, 여자들이 기를 쓰고 사회생활하려는 것이 이상스럽습니다. 제가 여자라면
맘 편히 집안일 하면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즐기면서 살겠어요.”

영.).< 할말을 잃었다.



이런 에피소드로 모든 남성들을 공범자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하지 말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 비하하는 것... 이러한 일은 우리 일상에서 비일비재한 것이며, 그것의 부당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귀찮고 피곤한 것이 되가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여성인 내가 느끼는 현실이니까.

사실 내가 그런 불쾌감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내 안으로부터 끄집어내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성적 농담을 해놓고 그것에 불쾌해 하는 내게 ‘웃자고 한 얘기지.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들의 전략에 말려, 한편으로는 불유쾌하지만, 사회 생활이란 게 뭐...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겼었다.

그런 일들은 점점 내게 일상적인 것이 되었고, 그러는 사이에 나는 ‘말’을 잃어버렸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망설임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게 되었다. 그때마다 나는 ‘조심한’ 여자였고, 어느새 ‘사려 깊은’ 여자로 둔갑해 있었다. 당시 내게 나를 규정짓고 있는 언어들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힘들었다.

어떤 작가는 인어공주가 저지른 최대의 실수가 ‘말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여성을 하나의 온전한 인간이 아닌 단순히 ‘여성’으로 남게 만든 이데올로기의 승리라는 것이다. 우리의 세상은 동화 속 세상과 다를 바 없다. 여전히 우리는 인어공주가 되어야만 한다. 정확히 말해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무언의 압력 받고 있다. 근데 이제는 아예 ‘고작 차 시중드는 데 항의하는 - 하나밖에 모르는 - 단순한 여성이 아닌, 전략적인(?) 여성이 되라’ 유언의 압력을 넣는다. 그러나 결국 인어공주의 최후는 어땠는가? 인간이 되어 사랑을 쟁취하기는 커녕(물론 왕자의 사랑이 구원의 길이 라는 것은 여전히 불유쾌하지만, 어쨌든.) 거품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일상화된 성폭력의 현장에서 ‘나란 인간은 뭐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느꼈던 답답한 심정, 여자인 당신은 공감할게다. 어쩌면 그러한 일상적인 폭력에 무감각해져 버려 어떠한 불쾌감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치만 나는 기억한다. 어떻게 그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응수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목석처럼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어야만 했던 순간들을...

여성을 둘러싼 박제된 선택과 그것을 거부하는 작은 몸짓. 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행동이며 고단함과 부딪힘의 길이라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 질 수 있게 되었다. 내 자신에게조차도 솔직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나...

자신의 언어를 갖지 못한 자가 갖는
답답함과 무기력감으로부터
벗어날 그날을 위해...!!



반성폭력 학칙!

성폭력. 이제는 너무 익숙하게 듣고 있는 말이라 '지겹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또다시, 그리고 끊임없이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폭력이란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성폭력은 기존의 권력관계 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다. 성폭력은 또 다른 '성적인 표현'이 아닌, 범죄일 뿐이다. 또한 이러한 성폭력은 지겨울 정도로 일상 깊숙이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단지 친밀함의 표현이 되기도 하고,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로 가두어지기도 하고, 내가 불편한지 물었다는 변명으로 묻히기도 한다.

그렇다. 성폭력은 너무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며,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그것이 성폭력임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해결의 방법이 더욱 묘연하게 느껴진다. 또한 겹겹이 둘러져 있는 관계들의 복잡함과 그 속의 굳은 권력관계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기조차' 쉽지 않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은, 그리고 많은 여성들은 이야기 시작했다. 내가 경험한 이 불편한 기억들은 성폭력이었다고,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고, 내가 밤늦게까지 술자리에 어울린 것이 성폭력을 당해도 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수업시간 교수님에 입에서 나오는 성차별적인 언행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으며, 논문 지도를 받기 위해서 내 몸이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침해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였다.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당국은 이러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학교당국은 당연히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위협 받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망각하고 있다.

학내 모든 구성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된 지 4년째 되어간다. 그러나 반성폭력 학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는 '학교당국'의 성폭력 해결에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성폭력 학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폭력 상담실은 학칙을 홍보하고, 예방 교육을 해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성폭력 상담실의 문제가 아닌, 학내 모든 행정 기관과 부서들의 무책임과 학교 정책결정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폭력을 주변적인 문제로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 시키는 학교당국에 대해서 더 이상 여성들은 가만히 지켜보지 않는다. 학교를 다니면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기 때문이며,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함께 나누는 총여학생회! 함께 만드는 여성주의

궁금하다. 여성주의! 알고 싶다.
여성운동!

여성주의·여성운동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구비하여 이러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총여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도 없고,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자료들을 총여학생회에서는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총여학생회 예산자치제 실시

학생회비를 총여학생회가 아닌 다른 여성주의
활동 단위와 함께 나누는 예산자치제를 내년도에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자치단체, 수업 프로젝트 모임, 개인 등의
학내 여성운동·여성주의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자치제는
매학기 진행됩니다.

둘.

처음하는 여성주의 행사.
총여학생회에서 도움을!

행사 플래카드를 싸야 하는데 길이는 어떻게 하지?
포스터는 어디서 얼마에 만들 수 있을까?
강의실 대여는 어떻게 하지? 학내에서 처음 행사를
준비하게 될 때 부딪히게 되는 이러한 문제를
총여학생회와 함께 해결하세요. 행사 준비에
꼭 필요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셋.

‘그들’의 공모를 전복하기 위하여

교환학생을 갔다가 알게 된 레즈비언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들은 적이 있다.

“한국에는 동성애자(gay people)가 없대며?”

이것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예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연하게 가정하는 이성애중심주의 사회를 명쾌하게 비튼 것이었지만, 나로 하여금 이 사회가 성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든 뼈아픈 지적이기도 했다.

물론 성소수자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이 쉬이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사회와 학교가 너무 위험천만하다. 호모포비아는 성소수자들에게 아웃팅의 위협과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난사하였고, 결국 그들은 시민으로서나 학생으로서나 투명인간이나 다를 없다. 무엇이, 심지어는 소위 지성인을 양성한다는 학교에서조차 영원토록 성소수자와 퀴어문화를 추방하게 만들고 호모포비아를 지속가능한 규범으로 존속시키고 있는 것일까, 이 학교괴담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실 호모포비아는 그동안 인종주의, 종교, 가부장주의 등 온갖 이데올로기들과 사이좋게 협력하여 성적 지향과는 무관하게 개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치명적인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호모포비아로 하여금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특정 기원을 찾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자로서, 그리고 학내라는 공간에서 여성주의의 흐름을 만들어나가는데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호모포비아, 또는 이성애중심주의와 가부장주의의 행복한 공모에 있다. 이성애중심주의와 가부장제? 언뜻 이 둘의 오래된 결합은 즉각적으로 파악되거나 추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듯 보인다. 그러나 가부장주의가 불허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서 그것이 호모포비아의 근거와 자양분이 되었을 때에는 인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다.

성소수자들의 많은 경우는 극도로 젠더(gender)화된 이 사회가 설정해놓은 성역할의 범주를 거부하고 모호하게 만든다. 게이가 표출하는 “여성성”이나 레즈비언이 표출하는 “남성성”, 그리고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젠더(transgender)가 드러내는 성역할의 경계 뛰어넘기는, 여성을 감성적/나약/비이성적/무성적(asexual)인 존재로 규



정함으로써 가부장주의에 존속시키려는 전략에 대단한 방해꾼으로 작용한다. 그뿐이던가? (이성애자) 남성 동성 사회에서 모범적인 남성 시민의 이미지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소외되는 남성 성소수자들의 “여자같은 것”에는, “여자”가 폄하의 의미를 운반하는 존재로 쓰였을 뿐 아니라, “남자가 어떻게 여성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함의도 담겨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게이의 성적 지향성 역시 단순히 남성을 욕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남성이 (이성애자) 여자같이 남성을 욕망한다”는 관념 아래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성적 소수자이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이성애자 남성들로부터 성폭력의 위협에 매 순간 노출되는 레즈비언들에게, 가부장주의와 호모포비아는 극단적으로 작용한다. “여성은 남성에게 궁극적으로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가부장주의적 전제는 이성애 관계 내에서의 남-녀 권력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는데, 레즈비언들은 이성애자 남성들과 그러한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고 맺을 일도 없다는 관념은 이성애자 남성들의 위기를 통한 폭력의 배가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성 성소수자의 책임이던가? “내가 아직 남자를 못 만나서 그렇다”는 어처구니없는 이 자신감들은 사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이 효과적인 종속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믿는 가부장제의 신화에서 발생한다. 대중매체와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빈번히 등장하는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성애자 남성들의 관음증적 환상은 이 같은 맥락에서 레즈비언의 섹슈얼리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인 것과 동시에, 여성의 섹슈얼리티, 특히 레즈비언의 섹슈얼리티는 개인의 성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우 쉽게 대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호모포비아와 가부장제는 결국 행복한 공모를 통해 효과적으로 개개인들에게 작용한다. 심지어는 소수자인 여성에게도 호모포비아는 유효하다. 가부장성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검증”받아야 하는 이 사회에서, 소수자들의 연대는 종종 어렵고 까다로운, 입 안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다.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이성애자 여성의 호모포비아나 남성 성소수자의 가부장성은 이와 같은 공모가 스멀스멀 침범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여성이 성소수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은 결국 호모포비아와 결합한 우리 안의 가부장성에 대하여 보다 힘 있게 싸우기 위해서이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슈 파이팅은 필요와 편의에 따라 “유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고민해야 한다.



기억되지 않는 존재, 장애여성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간간이 장애학생들을 볼 수 있다. 생존권이나 다른 없는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학생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매우 열악하게나마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점차 늘어나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엔 휠체어 통행을 위한 경사로나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는 불편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긴 하지만 계단을 통행할 수 있는 리프트도 간혹 설치되어 있다. 직접 장애학생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장애인편의시설을 통해서 우리는 장애학생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우리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장애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이다. 교내에서 장애여성을 만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장애여성은 없다. 과연 장애여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여성은 약 55만 9천명으로서 전체 장애인의 38.6%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운동계 일각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라 전체인구의 10%인 450만 명이 장애인이고 그 중 45%인 약 200만 명을 장애여성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 장애여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서 장애여성을 볼 수 없는 것은 장애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고용 및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장애여성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장애여성은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중의 하나인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68.5%가 무학 및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41.8%의 장애남성, 29.6%의 비장애여성에 비하면 무척 낮은 수치이다. 대학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장애여성의 비율도 4.2%로 장애남성의 11.2%의 37.5% 수준에 불과하다.

교육기회에서 배제된 장애여성은 취업에서도 장애남성이나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 힘들다.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1.8%인 것에 비하여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불과 29.3% 밖에 안 되며 그나마 직업이 있는 장애여성도 대부분 불안정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의 비정

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비록 적은 수준이지만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서도 장애여성을 위한 할당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고용기회의 박탈은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을 필연적으로 절대적 빈곤의 상태에 놓이게 한다.



장애여성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정 경제의 어려움이다. 장애인 교육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이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자녀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은 순전히 부모에게로 전가되기 때문에 웬만큼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아닌 이상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장애여성의 경우 장애인으로서 겪는 차별에 더해지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장애남성보다 교육의 기회를 덜 받고 있다. 가족의 헌신적인 지원에 의해 교육의 기회를 얻는 장애 남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애여성의 경우에는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 살림이나 도와라'는 식의 가부장적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 지원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인 가족으로부터의 지원도 받기 힘들다.

교육기관의 열악한 현실 역시 장애여성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큰 이유이다. 특수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 교육을 비장애인 교육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교육계와 사회 전반의 시선은 장애여성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고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의 장애차별적 구조는 장애인이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정상성의 사회에서 교육기관들은 철저하게 비장애인을 위해 비장애인에 의해 설계되고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비장애남성을 기준으로 계획된 건물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배려없이 장애여성을 교육의 현장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역시 비장애남성을 기준으로 한 교육과정은 여성을 의존적이고 수동적이며 무능력한 존재로 보는 남녀간의 성에 관한 고정관념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어 장애여성은 교육과정 속에서조차 장애여성 스스로를 가지 절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교육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배려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하고 교육과정 또한 장애여성에게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구성되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여성에게는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여성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기준에 맞는 개별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의 공개

넛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결국에는 완전한 통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개선책들이 현실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교육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회현실을 바꿔나가야만 한다. 교육기회의 박탈은 인권의 문제이며 장애여성의 문제는 장애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장애여성의 교육권의 박탈에 관해서만 다루었지만 장애여성이 겪는 차별은 비단 교육기회의 박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장애여성은 능력과 효율성 위주의 노동현장에서 인간으로서 노동할 권리를 빼앗긴 채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빈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장애여성은 성적 욕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당하여 무성적인 존재로 왜곡되면서 동시에 성폭력과 학대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등 삶 속에서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경험하고 있다.

장애여성이 빼앗긴 인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을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의 시각과 그 시각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장애여성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여성을 지원하고 배려하지 않는 것은 장애여성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장애여성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여성의 문제는 분명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장애인 위주로 구성된 사회 제도의 문제이며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의 문제이다.

장애여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장애여성은 장애남성과 다르며 또 비장애여성과는 다른 장애여성 특유의 고통과 특별한 욕구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여성의 권리를 되찾고 차별적인 사회현실을 바꿔내는 것은 장애인 운동도 아니고 여성주의 운동도 아닌, 바로 장애여성 이 주체가 되는 운동으로서만 현실화 될 수 있다. 여성주의자로서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의 다름을 이해하는 기반 위에서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사회의 모든 억압과 편견을 여성의 이름으로 깨뜨려 나가기 위해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차별

대학에서 여성교수는 어디에 있는가?

간접차별이란?

"어떤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외형상 또는 형식상 성적 차별이 없거나 중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성(性)의 비율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히 적어, 그 한 성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 그 조건이나 기준이 성별에 관계없는 정당한 것이라거나 업무상 필요성에 부합한다는 것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음"

연세대학교 여학생 및 여교수 현황

(2003년 3월 기준)

대 학	교 수 비 율				학생비율
	총 원	여 성	남 성	여성비율	
문 과 대	105	14	91	13.3%	63.7%
상 경 대	76	0	76	0%	29.0%
이 과 대	83	5	78	3.0%	40.1%
공 과 대	165	3	162	1.8%	15.9%
신 과 대	6	1	5	16.6%	26.3%
사회과학대	39	3	36	7.6%	41.8%
법 과 대	18	0	18	0%	31.6%
음 악 대	26	13	13	50%	72.3%
생활과학대	30	26	4	86.6%	84.7%
교 과 대	23	3	20	13%	27.9%
교 목 실	5	0	5	0%	
대 학 원	27	1	26	3%	32.4%(의대)
국제학대학원	11	1	10	9%	
정보대학원	4	0	4	0%	36.1%(치대)
영상대학원	3	0	3	0%	
사회복지대학원	1	0	1	0%	
연합신학대학원	6	0	6	0%	97.6%(간대)
합 계	628	70	558	11.1%	37.2%

※ 여학생 및 여교수 현황 출처 : 여학생처, 총학생회 홈페이지

반전(反戰)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

“행복한 여성주의”에서는 2004년에도 전쟁을 반대하는 활동에 동참하여 반전과 평화에 대한 외침을 이어가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는 목적을 내걸고 이에 걸맞지 않는 수단인 ‘전쟁’이 끊임없이 평화와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익’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전시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파병을 결정합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울뿐인 국익을 ‘인권’과 맞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행복한 여성주의’는 모든 전쟁을 반대하고 여성의 시각으로 그것의 하울과 모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전까지는 덜어두고 쉬워했던, 전쟁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전쟁 피해를 이야기할 때 직접적인 인명피해나 산업시설의 파괴 등 경제적 손해에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물론 전쟁이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고 산업시설과 경제를 파괴함으로써 주는 고통은 심각한 피해입니다. 그러나 전쟁 때문에 벌어지는 피해 상황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남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되면 생계와 국가 경제를 지키는 책임은 여성에게 맡겨집니다. 남성들이 죽어나가고 폭격으로 인해 황폐화되는 전장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피해로 쉽게 드러났지만, 일상에 남은 여성들이 빈번히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폭력에 시달리며 목숨을 잃고 인권을 위협받는 장면은 피해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테러범을 처단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을 때에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기존의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해 성폭력과 생존의 위협이라는 다중의 억압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위와 같이 여성이 전쟁으로 인해 입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들을 간과해왔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국익이라는 거대 담론에 묻혀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은 사소한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전쟁 준비과정과 전쟁의 결과로 인해 그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수단인 군대 때문에 병역필자와 미필자간의 구획과 차별이 생겼고, 군대로부터 파생되는 문화는 가부장적인 사회를 지탱하는 하위문화로서 '성녀'와 '창녀'를 규정짓고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여성과 소수자들은 전 시가 아닌 경우에도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반인류적 행태인 전쟁에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래에 묻혀있었던, 전쟁과 국가 담론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과 소수자들의 피해에 눈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여성주의가 말하는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의 의미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이 낳는 차별과 폭력의 억압 속에서는 '그들만의 평화'가 존재할 뿐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미국에 복수하기 위해 '미국 여성을 강간하자'라는 말이 창궐하는 지금의 현실 앞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전쟁을 재평가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위한 전쟁 반대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이미지의 여성으로서가 아닌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전쟁 피해자로서, 평등한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를 갈망하는 보통의 인간으로서, 여성의 이름으로 적극적인 반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숨쉬는 여유를 찾아서, 여자만의 방으로

왜 저런 말을 하지?
기분이 나쁘다. 왜 아무도 화를 안내지?
내가 이상한 걸까?

일상에서 부딪치는 작은 짜증들, 분명히 옳지 않은 말인데
왜 모두 같이 웃고만 있을까요?
화가 나는 건 나뿐일까요?

여자들이끼리만 하고 싶은 이야기 맘놓고 화낼 수 있는 공간,
서로 힘주고 힘 받을 수 있는, 직지만 대방 행복한 공간이 있습니다.
매달의 커버스토리, 상담게시판, Q&A 게시판이
더 행복한 당신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숨쉴 수 있는 여유를 찾아서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 만났어요?



행복한 여성주의를 함께하며

다량

전시화나 영화화된 비평에서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같은 문장을 보고 그랬었다.' 하고 곱씹어 본 기억. 교양 수업시간에 책의 목차를 찾던 여성주의를 사상자의 한 흐름으로 만나는 일. 여성주의를 마치 강의실 안에서 배워야 하는 지식인 양 밑줄을 긋고 필기를 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나는 여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경쟁화가 공공연히 열리는 술자리에서의 소외감과 불편함을 느끼고, 불편하면서도 여전히 보여지고 평가받는 위치에 익숙하다. 불편함마저 익숙한 자아.

텍스트의 장막을 걷고 나면 그렇게 익숙함에 가대어 무뎌져가는 나의 일상이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 여성주의의 대문을 열어 나는 그런 나의 익숙함에 반기를 들고 싶었고 차라리 낯선 행복을 내 안에 길들이고 싶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명운동에 이름을 적어 넣는 것으로 뭔가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끼기보다는 나의 여성주의를 갖고 싶은 욕망이 더했고 교정을 떠도는 남근주의적인 욕설에 꾸밈지 않은 몸짓을 벗어바라기엔 나의 역사가 감각적 수의 기민함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여성주의자들을 만나 나의 배움과 감정이 일상으로 소용되고 함께 나눌 수 있음이 지금은 마냥 편안하고 좋지만 하다. 무성할수록 속에 매몰되지 않고 일상의 돌보기로 행복을 찾아가는 나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선거를 준비하는 지금,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여성주의로 만나고 교감하고 싶다. 그리고 여유에 피곤한 기색으로 드러나는 학우들에게 넉넉히 얘기하고 싶다. 함께 나누고 같이 행복해지자!

고래

처음으로 여성주의자들을 만나기 위해 문고리를 어렵게 돌렸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낯선 곳으로 들어서는 나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는지, 내가 왜 여기서 이 자리에 문고리를 잡고 있는지, 여기 들어서고 난 후 나의 모습에 어떤 변화가 올지. 그런 생각들을 주상주한 집고 들어선 여성주의자들의 공간은 내게 예전 고등학교 시절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사람들과의 대화와 그들의 몸짓 하나 하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그것은 이미 익숙했던 편안함이었다.

여자들이나 오소도소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는 공간은 그리지 못했던 시간만큼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자리였다.

대학 입학 이후로 내가 가졌던 시간과 공간은 내가 알든 모르든 많은 커튼 내게 불편한 감정을 갖게 만들었다. 그 불편함 속에는 이제까지의 나의 일상.

특히나 이성과 함께 했던 일상 속에서 품었던 감정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나는 여성주의자들과의 만남으로 재감할 수 있었다.

즐거웠다. 자아가 있었지만, 그런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에게 그 불편함에 대한 이유를 기탄 없이 생각하게

해주었다. 아직 해 인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함께 문제의식을 느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온다. 우리 학교 여학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열심히 여성주의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쉽다.

여성주의에 여성주의에 다가가기 힘들게 하는 것들, 여성주의에 대해 말하고 싶음에도 혼자라는 것에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노력이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함께하는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한 여성주의 함께한 사람들

정후보 : 샘/김남수진(인문계열 00)

부후보 : 열/권박미숙(사회계열 01)

이끌말 : 늘/채하승연(국어국문 00)

생각말 : 이음/강나서영(경영 01)

죽/서변종성(인문학부 98)

역임말 : 쿠루/신우희정(정의 99)

이지형(경제 01)

알림말 : 고동/이윤수련(사회 00)

다량/선자연(의예 02)

쟁김말 : 환타/김기원(사복 98)

몽/김이효진(인문 03)

상어/김주은(치의예 01)

행운/최예진(이학 02)

고래/박미라(교육 02)

모란/신연경(사회학 01)